지식경제부 보도참고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자료문의 :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과장(2110-5481), 문상민 사무관(2110-4879)	

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착수

= "전문가 검토 T/F" 등 지난 1개월간 주민과 충분한 공감대 형성 =

= 안전한 원전운영 및 지역과 원자력의 상생방안 추진 등 후속 조치 =

재가동 결정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지난 7.4(수) 원자력안전위원회(이하 원안위)의 안전성 확인 및 재가동 허용결정 이후, 한 달여간 지속된 대국민·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거쳐 고리원전 1호기(이하 고리1호기) 재가동을 결정하고, 재가동 작업에 착수하였음

○ 8.6(월)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상기 고리1호기 재가동 결정내용과 함께 안전한 원전운영 및 지역-원자력 상생방안 추진 등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함

☞ 발표문 전문은 <첨부1> 참조

□ 정부가 재가동을 결정한 배경에는 그간 소통과정에서 고리1호기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가 제고되었고, 지역주민들과 재가동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임

□ 금일 재가동에 착수하는 고리1호기는 이르면 8.10(금)부터 100%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○ 하계 전력피크 기간(8월 3주 ~ 8월말) 중 전력수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

* 고리1호기 설비용량은 58만kW로, 8월 4주 예비력 144만kW의 40% 수준

그간 소통노력

□ 정부는 지난 3.12(월) 고리1호기 가동정지 후 총 11차례 부산·고리지역을 방문하여 지자체, 지방의회, 지역단체, 지역전문가, 고리주민 등과 다각도의 소통 노력을 기울여왔음

○ 특히 지경부는 7.4(수) 원안위의 재가동 허용결정 이후에도 고리1호기를 즉시 재가동하지 않고, 안전성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노력과 함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음

○ 지역 소통의 내용은 고리1호기 사건 재발방지 대책 논의, 원안위 안전점검 결과 설명, 고리지역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됨

□ 아울러 지경부는 본 사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걱정을 감안하여, 일반 시민들과 수차례 소통의 기회를 갖고 고리1호기 사건의 문제점과 대책을 논의해 왔음

○ 시민 소통은 대학생, 주부,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, 고리1호기에 대한 현안 뿐만 아니라 원전·에너지 정책 일반에 대해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짐

☞ 상세한 소통내역은 <첨부2> 참조

□ 한편 지경부는 그간 고리원전 인근 주민들이 고리1호기 사건의 주요 원인인 비상디젤발전기에 대해서는 성능시험 주민참관* 등을 통해 안전성을 충분히 납득하였으나, 이와 별도로 원자로 압력용기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,

* 5.14(월) 6.8(금), 6.20(수) 세 차례 실시 (주민참관 후 간담회 개최)

○ 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와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원자로 압력용기 "전문가 검토 T/F"(이하 T/F)를 구성하여, 고리1호기 안전성에 대한 고리지역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

< 전문가 검토 T/F 개요 >

◈ (공식 명칭) 고리1호기 원자로압력용기 건전성 전문가 검토 T/F
◈ (전문가 구성) 주민대표 추천 7명, 한수원 추천 3명
※ 국내 금속·재료분야의 권위있는 전문가 중심
◈ (검토기간) '12.8.1(수) ~ 8.6(월)

○ T/F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보관중인 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시편을 직접 확인하는 등 그간 안전점검 절차와 내용에 대해 지난 1주일간 심도있게 검토*한 결과,

*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, 원전 안전점검 시설방문(원자력연구원) 및 원자력 규제기관 의견청취(원자력안전기술원), 고리원전 현장점검 등

- 금일 오전 검토보고서를 통해 "고리1호기 원자로 압력용기의 건전성이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"는 결론을 도출하였음

○ T/F의 검토 결과는 고리1호기의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는 것으로써, 주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된 것으로 기대됨

☞ 상세한 검토결과는 <첨부3> T/F 보도자료 참조

후속 조치

□ 지경부는 금번 고리1호기 사건을 계기로 안전한 원전운영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철저히 점검할 예정임

○ 고리1호기 사건 후 수립한 「원전 운영개선 종합대책」(지경부, 4.13(화)) 및 「한수원 쇄신대책」(한수원, 7.10(화)) 등의 세부과제를 금년말까지 대부분 완료할 계획임

□ 아울러 지역주민 및 민간전문가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투명한 원전운영을 통한 국민적 신뢰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음

○ 이를 위해 원전의 계획예방 정비나 주요설비 교체시 전문가의 참관을 허용하는 등 민간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할 계획임

□ 또한 그간 주민소통 과정에서 지역과 원전이 상생 발전해야 한다는 주민의 요구를 수차례 확인함에 따라,

○ 지경부는 「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」를 지역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임

○ 이 과정에서 정부는 공청회, 간담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면서, 원전지역 주민과 함께 "합리적인 상생 방안"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

참고1 **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관련 발표문**

존경하는 국민여러분 !

연일 계속되는 더위에 얼마나 힘드십니까? 그런데도 실내 온도를 26도에 맞추고, 플러그를 뽑는 등 전기 아끼기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금년 여름의 전력사정이 여유롭지는 않으나 국민여러분 덕분에 지금까지는 잘 넘기고 있습니다. 그러나 모두가 휴가를 끝내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이 달 중순이 올 여름 중에 가장 전기사정이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.

이러한 전력 최고수요시기를 앞두고 오늘 고리1호기 재가동을 발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국민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4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고리1호기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재가동을 허용하였습니다. 그러나 이러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 하시는 주민들이 계시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가동을 미루고 지난 한 달 여 동안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각계각층과 대화를 해 왔습니다.

그리고 고리주민들이 추천한 전문가와 한수원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안전점검 결과를 검토하는 과정도 오늘 마쳤

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주민들께서 충분히 고리1호기의 안전성에 이해를 하신 것으로 믿고 재가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주민여러분들의 협조로 소통절차가 잘 마무리되어 고리1호기를 재가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
국민여러분 !

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전을 더욱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 이를 위해 지역주민은 물론 국민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

저는 지난 7월에 두 번 고리를 방문해서 지역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나누고 마을 곳곳을 돌아보았습니다. 그 때 무엇보다도 지역과 원전이 상생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. 이에 정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를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인 상생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.

존경하는 국민여러분 !

다음 주부터 2주간은 전력사정이 가장 어려운 때가 될 것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전기를 조금만 아껴주셔도 이 어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.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립니다. 정부도 지혜를 모아 국민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전력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

다시 한 번 고리1호기 가동에 협력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과 국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

2012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

참고2 그간 지역·일반시민 대상 소통 내역

□ 부산·고리지역 주요 소통내역

일 자	소통 주체	소통 대상	주요 내용
3.23(금)	지경부 장관 부산 방문	부산시장, 시의회 의장, 고리지역주민, 언론 등	고리1호기 사건에 대한 사과, 시민감시 참여방안, 한수원 쇄신계획 설명 등
4.10(화)	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주민간담회	기장군수, 울주군의원, 민간환경감시기구 위원, 고리지역주민 등	3.23(금) 방문 후속조치 설명
6.4(월)	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부산 방문	부산시 행정부시장, 고리주민 등	원안위 안전점검(5.11~6.25) 및 IAEA 특별점검(6.2~6.11) 계획 설명
6.28(목)	원안위 고리1호기 전문가 토론회	지자체 추천 전문가, 탈핵 환경단체 등	기술적 현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
7.4(수)	원안위의 고리1호기 안전성 확인 및 재가동 허용 결정		
7.6(금)~ 7(토)	지경부 장관 부산·고리 방문	부산시(시장), 언론, 고리지역 주민 등	"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후 재가동" 원칙 설명, 주민 의견수렴 등
7.9(월)	원안위 고리1호기 전문가 토론회	부산시(부시장), 기장군, 전문가, 시민단체, 주민 등	원안위 안전점검 결과 설명, 안전성 관련 시민단체·주민 질의응답
7.10(화)	원안위 고리1호기 주민설명회	주민 150여명	주민 반발로 설명회 무산
7.11(수)	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고리 방문	기장군수, 기장군의회, 민간환경감시기구 등	지자체 및 주민단체 의견수렴
7.14(토)	지경부 장관 고리 방문	원전인접 4개마을, 주민대표 등	주민-한수원 전문가 검토 T/F 논의, 주민 건의사항 수렴 등
7.29(일)	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고리 방문	주민대표	주민-한수원 전문가 검토 T/F 기본 합의
8.1(수)	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 고리 방문	기장군수, 주민대표 등	주민-한수원 전문가 검토 T/F 세부방안 합의, 지역 의견수렴

※ 기타 한수원(고리본부) 주관 주민간담회 47회, 면장·이장 간담회 8회 실시 (7.4(수) ~)

□ 일반시민 대상 주요 소통내역

일 자	소통 내역	대상	주요 내용
4.19(목)	지경부 장관 시민환경단체 간담회	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대표 9명	고리1호기 현안토의, 중장기 원전 및 에너지 정책 토론
5.10(목)	지경부 장관 숙명여대 학생간담회	숙명여대생 200여명	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
5.28(월)	지경부 2차관 전북대 학생간담회	전북대 자원공학과 학생 및 교수진	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
7.9(월)	지경부 장관 주부대표 간담회	3,40대 주부 130여명	에너지·원자력 정책, 에너지 절약 관련 토론 및 질의응답